제6회 동주문학상에 강재남 시인 선정

광주일보·계간 '시산맥' 공동 주관

수상작 '꽃이라는 기호의 모습' 등 5편
동주해외작가상 임혜신 시인
동주해외작가특별상 곽상희 시인
동주해외신인상 유금란 시인

광주일보와 계간 '시산맥'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6회 동주문학상에 강재남 시인이 선정됐다. 수상작은 '꽃이라는 기호의 모습' 등 5편이며 상금 1000만원.

윤동주 시인의 '서시'에 담긴 시 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널리 확산하기 위해 제정된 동주문학상은 지난 2019년부터 윤동주서시문학상에서 동주문학상으로 이름을 바꾸고 시집 공모로 응모를 받았다. 총 236명이 응모를 한 이번 공모전에는 13명의 작품집이 예심을 통과했으며 5명의 후보 작품이 최종 본심에 올랐다.

심사를 맡은 안도현·송찬호·이정록 시인은 수상 작품에 대해 "'꽃이라는 기호의 모습'에서 보이는 것처럼 그의 언어는 매우 발랄하고 유쾌하다"며 "때로는 동화적 상상력으로 때로는 구어체 형태로 말을 건네는 강재남의 문법은 한 창 물이 오른 듯하다"고 평했다.

경남 통영 출신인 강 시인은 2010년 '시문학'으로 등단했으며 한국문화예술유망작가창작지원금 수혜, 한국동서문학작품상을 수상했다. 시집으로 '이상하고 아름다운'이 있으며 현재 통영청소년문학아카데미 주임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임혜신 시인

곽상희 시인

유금란 시인

해외에서 우리말로 시를 쓰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주해외작가상은 미국 플로리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혜신 시인에게 돌아갔다. 1997년 미주 한국일보로 등단한 임 시인의 이번 수상작은 '에어비앤비' 등 5편이며 상금은 300만원이다.

또한 윤동주 시인의 정신을 시로 구현하는 활동을 펼치는 시인에게 주어지는 동주해외작가특별상은 뉴욕에 거주하는 곽상희 시인의 '물의 길' 등 5편이 선정됐다.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한 곽 시인은 1980년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으며 국제여류시인상 등을 수상했으며 현재 '뉴욕시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신인들을 대상으로 한 동주해외신인상은 호주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유금란 시인이 수상자로 결정됐다. 수상작은 '자연발화' 등 4편. 유 시인은 2008년 '조선문학' 수필로 등단했으며 2018년 동서문학상 시 부문 맥심상을 수상했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11월 27일 오후 4시이며 장소는 미정. 문의 010-8894-8722.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자기성찰·고뇌하는 반성문 같은 시 너무 아팠다"

동주문학상 수상 강재남 시인 인터뷰

윤동주 시인은 감성적 원천
'쉽게 쓰여진 시' 가장 좋아해
"관찰자 입장 견지하는 작품 쓸것"

제6회 동주문학상에 선정된 강재남(사진) 시인은 "시인 윤동주의 자기 성찰, 고뇌하는 청년의 반성문 같은 시가 너무 아팠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순결한 청년처럼 저도 그런 청년을 꿈꾸며 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동주는 최초로 내게 온 정신적 지주이며 감성적 원천이 아니었나 싶다"며 "자기반성을 잘하는 저는 나쁜 일이 있어도 제 반성에 먼저 들어가는 습관이 있다"고 덧붙였다.

-제6회 동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소감은.

▲더 착하고 다정한 말을 배우겠다. 따뜻한 눈길을 주신 광주일보사를 비롯해 심사위원과 동주문학상 관계자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 온전한 내 사람과 위로를 준 더 많은 내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도 싶다. 이 좋은 기별이 '행성표류를 막 끝냈을' 김희준 시인에게 환하게 당도하길 바라봅니다.(강 시인의 딸인 김희준 시인은 지난해 교통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윤동주 시인에 대한 느낌이 남다를 것 같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책을 베껴 쓰는 걸 좋아했다. 거기에는 윤동주 시집도 있었다. 섬에는 책이 귀했는데 그래서 활자에 더 민감하고 집착했는지 모르겠다. 또한 그림을 그릴 때면 어느 구석에든 별을 그렸다. 나는 어느 별에서 추방당한 사람이라 여기며 살았다. 혹여 언젠가는 돌아갈 제 행성을 그렇게 그렸던 것 같다. 그러면서 윤동주의 별과 맞닿아 있었던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수상 소식을 듣자 떠올랐다.

-윤동주 시인 시 중 어떤 시를 좋아하고 그 이유는.

▲'쉽게 쓰여진 시'를 좋아한다. 일제 식민으로 살아야 하는 지식인의 고뇌와 성찰이, 조국을 위해 행동으로 보이지 못하는 자신을 반성하는 정서가 느껴진다. 일본에서 유학 중이던 청년 윤동주는 어두운 육첩방에서 나라의 암울한 현실에 고뇌하고 있었다. 늙은 대학교수의 강의를 들으며 나는 누구인지 여긴 어디인지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그려진다. 시대처럼 올 아침을 상상하면서 말이다.

-이번 수상 시집은 어떤 작품들이 주로 수록돼 있는지.

▲'뒷말'에 관한 모티브가 시로 된 작품이 많다. 사람들은 남의 일에 지나치게 간섭하는 경향이 있다. 단순한 어떤 것 하나를 포착하면 자신 생각으로 이야기를 파생시킨다. 그래서 마녀사냥이 시작된다. 침묵하는 사람은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말을 안 할 뿐이다. 귀찮아서 그렇기도 하고 그보다 더한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생활은 존중받아야 마땅한 거란 걸 아는 서로가 됐으면 한다.

-지난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을 겪었다고 들었다.

▲작년 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다. 비를 좋아하는 딸아이였는데 '빗줄기를 잡고 다른 행성으로 떠났다.' 26세였고 대학원에서 현대문학을 전공하는 중이었다. 내게는 딸을 넘어 둘도 없는 문우였다. 올해 7월 24일이 1주기였는데 산문집 '행성표류기'가 출간됐다. 희준(딸)이가 떠나고 그 아이의 시집 '루루와 나나'가 제11회 시산맥작품상, 다층시단이 뽑은 2020올해의 좋은시집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개해준다면.

▲통영시와 통영RCE는 예술에 특별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을 발굴해 해마다 통영장학금을 주고 있다. 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가 대상인데 해마다 많은 학생이 통영문학청소년아카데미 강의를 들으려고 한다. 콘테스트를 치르고 합격해야 들어올 정도다. 강의 중에 문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젊은 작가를 모시고 특강도 하고 강의가 끝나면 문집을 만들기도 한다. 일반 문집에 비견할 수 없이 모든 면에서 알차다.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한다. 아이가 떠나고 생각하는 게 무의미해지더라. 그러다 보니 습관이 돼버린 것 같다. 글을 쓰면 감정이 지배해서 쓰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던 것도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관찰자 입장이 돼 보려고 한다. 철저하게 관찰자가 돼 감정이 개입되지 않은 글을 쓸 생각 중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빛고을 렉처콘서트
14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올해 일곱 번째 빛고을 렉처콘서트는 추억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오는 14일 오후 7시 30분에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열리며 강사는 DJ 겸 프로듀서 문형식(사진).

문 DJ는 '영화는 끝나도 음악은 남아 있다'를 주제로 가을에 만나는 인기 있는 영화음악의 세계, 영화 속에서 차지하는 영화음악의 비중을 이야기한다.

특히 1999년 당시 KBS골든팝스에서 청취자 1000 명을 대상으로 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영화음악 베스트' 설문조사에 선정된 1위부터 10위까지의 곡을 소개하고, 영화와 음악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다.

문형식 DJ는 현재 CBS음악 FM '12시에 만납시다' DJ·프로듀서로 활동 중이며, 광주MBC라디오 별이빛나는밤 DJ·프로듀서, KCTV광주방송 편성제작팀장, 동강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외래교수 등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다.

선착순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입장료 무료. 7일부터 전화로 사전 예약 가능하다. 문의 062-670-792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노래가 있는 양석승 힐링콘서트
11일 광주 월전동 은곡농원

시와 노래, 유머가 넘치는 공연이 펼쳐진다.

'제32회 양석승(사진) 힐링콘서트'가 오는 11일 오후 3시 광주시 광산구 월전동 은곡농원에서 열린다.

월전동 어르신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획된 이번 공연은 금은희 행복충전센터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다.

박금향 해피실버문화연구소 부원장의 색소폰 연주로 막을 올리며, MBC 주부가요열창에서 우수상을 받은 박복례와 노래지도 강사인 전금복, 전국노래자랑 출신 전용희 등이 '추억의 소야곡', '동백아가씨', '세월에 던진 사랑', '황포돛대' 등을 들려준다.

또 양석승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장(전 광주대 교수)과 웃음치료사 황금빛, 판소리 가수 오양탁 등은 '평행선', '사랑아', '동전인생', '인생은 물레방아' 등을 부른다.

양 소장은 이번 콘서트에서 유머 및 힐링 강의, 마술 공연도 선보인다.

한편, 지난 2008년 한국감성충전&웃음치료연구소를 개소한 양 소장은 2013년 광주대 경찰법행정학부 교수직을 명예퇴직했으며, 이후 천혜경로원, 시티재활의학과 요양병원, 에버그린실버하우스, 늘푸른 요양병원 등에서 '양석승 힐링콘서트'를 열어왔다. 문의 010-3359-0070.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